‘밥 사주는 누나’ 이영자의 먹방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충분한 음미 · 음식의 풍부한 설명과 찬사 등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새로운 전성기 맞아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먹방’으로 주목받는 이영자에게 음식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 그 이상이다. 바쁜 스케줄로 숨 돌릴 틈이 없어도, 이영자는 끼니를 그냥 때우는 법이 없다. 지난 7일 방영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영자는 휴게소에서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소떡소떡, 오징어, 우동, 도리뱅뱅 정식을 먹고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제과점에서 많은 빵을 먹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며 두부 두루치기와 얼큰이 칼국수를 시켜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는 대식가 중의 대식가이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먹는 이영자이긴 하지만, 그냥 많이 먹는 법이 없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충분한 음미는 기본, 음식에 대한 풍부한 설명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이영자는 정말 먹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같다. 하지만 이영자는 음식만 사랑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긍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음식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자 애쓰는 이영자를 위한 최상의 에너지 자원이다.

◆ 핫도그의 소스까지, 그냥 넘기지 않는 이영자

21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7회에서 바자회에서 기부 판매할 캔화분을 만들기 위해 화훼 시장을 찾은 이영자는 소속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유명한 김치만두 집이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럼에도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김치 만두의 참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므로, 위장 보호를 위해 핫도그 세 개를 먹기로 한다.

이영자 매니저가 들린 프랜차이즈 핫도그 가게에는 핫도그 종류별로 최적의 소스 매뉴얼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개수의 핫도그에 헷갈린 나머지, 매니저는 핫도그 소스를 잘못 뿌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소스를 잘못 뿌린 핫도그가 이영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핫도그에 소스를 잘못 뿌린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타고난 혀를 가진 이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영자는 하나의 음식이라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을 줄줄 꿰고 있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다. 음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물론 맛 평가까지 음식 칼럼니스트 못지않다.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못 믿어도 이영자가 추천하는 맛집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영자와 그녀의 매니저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음식 이야기, 음식을 먹는 방법, 먹는 장면으로도 상당한 분량과 재미를 뽑아 낸다. 이영자 외에도 유병재, 홍진영 등 다른 스타들도 등장하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 ‘영자미식회’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도 음식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에 대한 표현을 아끼지 않는 이영자의 활약과 무관하지 않다.

◆ ‘영자 미식회’로 새롭게 전성기 맞은 그녀

지난 28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8회에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김치만두를 입에 넣게 된 이영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녀 특유의 리액션과 효과음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리액션이 많을수록 진짜 맛있게 먹고 있다는 뜻이다. 보통 맛있다 정도로 넘어가는 사람들과 달리, 이영자는 그녀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과 기분을 마구마구 분출한다. 머리로 정제된 언어가 아닌 온몸으로 느끼는 쾌감을 다시 온몸으로 표현하는 이영자의 리액션은 그녀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고, 보고 있는 사람 또한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충동으로 이끈다. 여기에 단무지를 김치만두에 싸서 한 입에 넣는 듯,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니 이영자가 추천하는 음식을 쉽게 거부할 자 없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연예인들의 가장 최측근인 매니저들의 말 못 할 고충을 제보받아 스타도 몰랐던 은밀한 일상을 관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참견 군단들의 검증과 참견을 거쳐 스타들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자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기획 의도와 달리 이영자의 먹방에 치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영자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비중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영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영자미식회’가 너무나도 강력하다. 밥 잘 사주는 유쾌한 누나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영자이긴 하나, 워낙 많이 먹어 보통의 위를 가진 매니저에게는 그 또한 엄청난 고역이기에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배가 불러 괴로워하는 매니저를 보는 재미도 있다.

그러나 ‘영자 미식회’의 중심은 뭐니해도 이영자다. 음식을 제대로 먹기 위해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는 이영자는 음식 앞에서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제작진도 직접 먹고 맛을 알아야 음식을 보다 맛있어 보이게 촬영할 수 있다고 믿는 이영자는 방송으로 전달되는 맛까지 놓치지 않는 진정한 ‘먹방인’이자 프로 방송인이다. 그러면서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영자와 매니저가 먹는 모습을 찍는 카메라 감독을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도 놓치지 않는다. 주객이 전도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음식과 삶에 대한 철학과 애정으로 가득한 영자 미식회를 보다 오래 봤으면 하는 바다.

‘어벤져스3’ 5일 만 400만…신기록의 연속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감독 안소니 루소, 조 루소)가 개봉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8일 토요일에는 하루 동안 133만 명을 동원하며 일일 최다 관객 수 신기록까지 세우는 등, 개봉 첫 주부터 무서운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28일 하루 동안 133만2349명의 관객을 모은 데 이어 29일 오전 7시 30분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역시 역대 최단 기록이다.

이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기록한 일일 관객 수는 종전 일일 최고 기록을 갖고 있던 ‘부산행’(2016년 7월 23일)의 128만2013명의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개봉 이틀 만에 100만, 3일째 200만, 4일째 300만, 5일째 400만 관객을 돌파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29일 오전에도 94.1%(11시,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의 실시간 예매율로 64만 여 명의 예매 관객을 확보하며 개봉 첫 주말 500만 문턱까지 무난히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겁다. 27일 북미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개봉 단 하루 만에 무려 1억 달러(한화 약 1073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이같은 수치는 역대 개봉 첫날 오프닝 신기록으로, 역대 마블 영화 중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의 개봉 첫 날 기록인 8442만4532달러(약 905억 원), ‘어벤져스’(2012)의 8081만3985달러(약 867억 원)를 뛰어넘었다.

전 세계의 누적 수익은 약 1억7850만 달러(약 1915억 원)이며, 월드 와이드 누적 수익은 2억8446만 달러(약 3052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개봉일이 확정되면서, 비슷한 시기 개봉을 앞뒀던 다른 작품들이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며 사실상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극장을 장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개봉 전 사전 예매량으로만 100만 장을 돌파하는 등 어마어마한 위력 앞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일일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8일, 2553개의 스크린에서 총 1만3183회 상영됐다.

로꼬x화사 vs 황치열 vs 멜로망스, 나란히 차트 1위

로꼬와 화사, 멜로망스, 그리고 황치열까지 차트 접전이다.

닐로의 사재기 의혹이 휩쓸고 지나간 음원차트에서 다양한 음악들이 사랑받고 있다. 개성 강한 뮤지션들의 음악들이 고르게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래퍼 로꼬와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의 매력적인 콜라보레이션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두 사람이 KBS 2TV 예능프로그램 ‘건반위의 하이에나’를 통해 발표한 곡 ‘주지마’가 8일째 롱런 중.

이 곡은 29일 오전 8시 기준, 지니와 올레뮤직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도 8시대 7단계 상승해 2위를 기록 중으로, 1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좋은 음악, 매력적인 뮤지션들의 힘으로 롱런 중인 것. ‘주지마’는 화사의 성숙미 넘치는 보컬과 로꼬의 청량한 랩이 잘 어우러진 곡으로, 술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남녀 간의 묘한 감정선을 잘 표현한 곡이다. 더불어 블루지한 기타 선율과 서로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솔직하고 재치 있는 가사가 곡에 몰입감을 더했다.

이어 멜로망스가 신곡 ‘욕심’으로 다시 한 번 차트 1위에 올랐다. ‘선물’로 역주행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던 멜로망스는 소리바다, 엠넷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색다른 감성의 음악을 어필 중이다.

‘욕심’은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다. 이 사랑을 말하면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시간조차 뺏어버리게 될까 봐, 자신의 사랑이 욕심인 것 같아 마음을 감춰야 하는 이의 감정을 담았다.

가수 황치열은 네이버뮤직과 벅스뮤직에서 신곡 ‘별, 그대’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발표한 앨범으로 이례적인 남자 솔로 가수의 파워를 발휘했던 만큼, 황치열의 꾸준한 롱런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별, 그대’는 누구에게나 있을 황홀했던 사랑의 순간을 기억해내며 가장 뜨거웠던 그때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곡이다. 발라드에 셔플리듬을 가미해 사계절 모두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밝게 편곡됐다.

‘예쁜누나’ 손예진 · 정해인의 현실연애, 부모 반응마저 현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가장 큰 묘미는 손예진과 정해인의 ‘현실연애’를 보는 것이다. 실제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달달함을 자랑했기 때문. 여기에 두 사람의 연애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반응까지 현실적으로 그려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선 윤진아(손예진)의 엄마 김미연(길해연)이 딸의 연애 상대가 서준희(정해인)라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김미연은 서준희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윤승호(위하준)에게 “앞으로 준희 만나지마”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연은 윤상기(오만석)가 딸의 연애를 응원하자 “제대로 된 딸바보 해라. 준희는 배다른 동생이 줄줄이다. 결국 준희 몫 될 거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상기마저 윤진아를 불러내 “부모라는 자리가 있고 없고는 크다. 네가 보는 눈과 부모가 보는 눈은 다르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윤진아는 “준희 내가 만날 자격이 되나 싶을 만큼 크고 훌륭한 사람이다. 나 처음 알았다. 사랑이 어떤 건지. 준희를 통해서 알았다. 준희가 얼마나 따뜻하고 고운 사람인지 아냐”면서 “나 말 안 듣는다. 절대 준희랑 못 헤어진다. 나한테 실망해도 할 수 없다. 나도 엄마 아빠한테 실망했다”고 맞섰다.

이처럼 극중 손예진과 정해인의 사랑은 큰 위기를 맞으며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손예진 어머니의 격렬한 반대에 대한 반응도 극과 극이다.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꼬집으면서도 실제로 손예진 어머니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밥 잘 살주는 예쁜 누나’는 세심하게 현실을 다뤄내며 뜨거운 인기를 모았다. 연애부터 직장 속 고충까지 주변을 둘러보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이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음력 3월 15일)

▶쥐띠 꽃이 만발하면 향기가 가득하기 마련이다. 신용과 믿음이 큰 행복을 안겨주는구나.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하루가 되겠다. 의류, 직물, 금속, 운송업자는 확장이나 이전하면 더 큰 것을 얻겠다. 10, 11, 12월생 검은색 옷으로 행운을 잡으라.

▶소띠 마음이 흔들려 이탈했다 해도 원래 위치로 돌아와 나를 지키라. ㅅ, ㅍ, ㅎ 성씨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은 탐내지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1, 9, 11월생 홀로 애태우지 말고, 동북쪽 사람과 상의해 협력하면 길이 열린다.

▶호랑이띠 사람 마음은 각기 다르니 배우자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 할 수 있다. 남편에 대해 불만을 앞세우기 이전에 내 욕심 채우려는 허영심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라. 2, 6, 8월생 내 사람을 남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확실히 하라.

▶토끼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끝이 없는 법이다. 마음을 비우고, 식구 중 신병으로 고생할 자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보라. 5, 6, 7월생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까 염려된다. ㅂ, ㅇ, ㅈ 성씨 현재 하는 일 힘겹지만, 내조가 있으면 순조롭겠다.

▶용띠 한 번 실수로 끝내야 한다. 같은 길을 두 번 다시 걷지 말라. 다시 만나 살면서 불만을 나타낸다면 화합의 장을 열 수 없다. ㄱ, ㅊ, ㅇ 성씨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감싸주는 배려를 가지라.

▶뱀띠 2, 3, 7월생 미용실, 식품, 의류 업종 종사자는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에너지만 소비하니 전업해야 좋겠다. 정신을 가다듬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으니 부부가 함께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해 새로이 도전하라.

▶말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력했지만, 한계가 온 것 같다. 이해심과 인내심으로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별거수가 따르니 감정 처리를 잘 하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지 않던가.

▶양띠 내가 가야 할 길을 남이 대신 갈 수 없다. 그러니 내 두뇌로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문제는 남의 도움을 받으라. 닭, 말, 토끼띠와 동업하면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4, 6, 11월생 조언해주려 만났다 사랑이 되니 조심하라.

▶원숭이띠 남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나 겉과 속이 다르게 산다. 그 속에서 버텨나가자니 마음은 숯처럼 검게 타는구나. 5, 7, 8월생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키워왔으나 부모 속을 몰라주는 자녀와 갈등이 심하다.

▶닭띠 금전은 노력하면 마음먹은 대로 해결되지만, 사람 다루는 것은 생각대로 안 돼 신경 쓰이겠다. 6, 9, 11월생 사업이 성장하려면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선이다. 이익보다 목적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대성할 수 있음을 알라.

▶개띠 금전 문제로 좋던 사이가 멀어진다. 짜증나더라도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라. 5, 6, 10월생 마음을 비우라 애태우다 신병으로 고생한다. ㄱ, ㅂ, ㅎ 성씨 내가 흔들리면 가정은 물론 자녀까지 영향을 받는다. 서쪽이 길하다.

▶돼지띠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기 마련이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 마음의 벽을 쌓아선 안 된다. 저울질 하기보다 결단이 요구되는 때다. 3, 9, 12월생 닭, 뱀띠와 신경전 벌이다 건강에 이상 올 수 있다.